



박주정
한국고려대학교 연구교수

내가 어렸을 때의 이야기다. 초등학교 3학년 즈음으로 기억된다.

그 당시에는 어려운 시절이었다. 내가 살았던 시골에서는 쌀밥 한 그릇 먹기가 가을에 풍년일 년에 몇 차례뿐이었다. 주식 멧쌀이나, 설날, 생일이 아니면 먹을 수가 없었다.

어머니는 밥을 지을 때 쌀 한 종지(아주 작은 양념 그릇) 정도를 보리 가루에 넣고 밥을 지었다. 아버지 밥만 쌀이 좀 들어가고 나머지 식구들은 쌀 구경을 못하고 살았다. 보리밥도 감사한 참 빈곤한 시절이었다. 허름해 돼지고기나 닭고기는 명절 때나 맛볼 수 있을 정도로 귀한 음식이었다.

나보다 2년 선배인 동네 형이 있었다.

집안이 어려워 초등학교도 못 다니고 있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팔팔 중이 팔팔인 형이었다. 나무에 올라가서 새집의 알도 깨내 먹었다. 간혹 빈 새집에

웨클로 들어가려다 머리가 쪼아진 것이다. 형은 불타는 모습으로 자신 있게 말했다.

“아, 주정아 새끼가 있으면 예미도 있어야.”

역시나 잠시 후 이미 노루가 나타났다.

나는 이미 노루가 불타서 가라고 쫓았다. 새끼 노루 목을 새끼줄로 묶어서 끌고 가니까 이미 노루는 도망가지 않고 따라왔다. 형은 이미 노루까지 잡았다.

마을로 내려왔다.

동네 형들 누구누구 이름을 불러주면서 집으로 오라고 내게 시켰다. 나는 형들을 찾아가서 오라고 말했다. 형들은 너무 귀한 것이니까 마을 어른들도 모시고 갔다. 마을 어른들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형 집에 모였다. 어른들은 노루 피가 톱에 좋다면 새 날카로운 칼로 목을 찔러 밧그릇에 받아먹었다. 그리고 살코기는 불에 구워 먹었다. 이미 노루는 동

노루 이야기

또아리를 끌고 있는 밧을 잡아서 손목에 청청 감고 나무에서 내려왔다. 성질도 과격해서 자기 말을 안 들어주면 무조건 때리고 발로 차는 등 좀 이상한 사고몽ضل이었다.

어느 주중 겨울날이었다.

나에게 내일 새벽 일찍 지게를 지고 자기 집으로 오라 했다. 무슨 일이라고 물어볼 수도 없었다. 과격한 성질을 몇 번이나 겪어봤기 때문이다.

새벽에 지게를 지고 그 형 집으로 갔다. 형은 나를 신숙으로 데리고 갔다. 궁궁했지만 형을 따라서 무작정 가고 있었다. 신숙에 조그마한 보리밭이 있었다. 겨울철이라 낫지는 차지만 보리가 제법 파랗게 자라 있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보리밭에 쟁 십여 마리가 죽어 땅에 엎어있었다. 형이 말했다.

“이제 내가 짐작을 이곳에 뒀다.”

그 당시에는 노란 콩이 구멍을 파서 씹어나(땀복성)인 정신기리를 그렇게 부를. 쟁 잡을 때 쓰는 땀복(땀)을 넣고 밧 가장자리에 놓아두면 쟁이 먹고는 죽었다. 겨울철에 먹을 것이 없어서 신중에서 내려와 덜커 쪼아 먹는다.

처음 보는 일이고, 죽은 쟁이 많아서 놀랐지만 신기하기도 했다. 나는 시키는 대로 쟁을 새끼줄로 묶어서 지게에 지고 내려오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바위 근처에 왔는데 이번에는 노루 새끼 한 마리가 밧에 걸려서 피를 흘리고 있었다. 노루 새끼는 밧에 걸려 있다가 사람이 오니까 피하려고 바

나 사람만 먹는 것이 아니라 열 동네 이장님 그리고 면사무소 면장님도 모시기로 했다.

그다음 날, 이미 노루를 잡는 날이다. 사람들이 마당에 여럿 모여 있었다. 노루 피를 먹으려고 사람들이 밧그릇을 들고 서 있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노루 피를 먹은 사람마다 구토를 하고, 배를 움켜쥐었다. 노루고기를 불에 구워서 먹었는데 고기에서도 썩은 냄새가 난다고 했다. 먹은 사람들이 또 토하고 못 먹었다고 했다. 사람들은 노루고기를 두고 돌아갔다.

집에 와서 어머니께 이 사실을 말했다.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새끼 노루가 밧에 걸려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이미 노루는 예간장이 다시 온몸이 썩은 것이다.”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다. 어머니는 내게 말씀하셨다.

“주정아, 서상의 애미들은 자식들을 그렇게 사랑한다.”

50년이 지난 옛날이지만 지금도 어머니의 그 말씀이 귓가에 주렁주렁 울려온다. 창자가 끓어오르는 ‘단장(斷腸)의 슬픔’이 가장 힘든 슬픔이란다. [예]가 붙는다는 것은 창자가 끓어오르거나 녹는다는 것이다. 노래 ‘단장의 미아리 고개’처럼 말이다.

동굴도 새끼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 정도인데 하물며 부모님의 자식 사랑은 어찌겠는가.

목회산책



히말라야를 세계의 지붕이라고 부릅니다. 그곳을 방문하신 분들은 히말라야의 만년설을 보고 사랑에 빠지지요. 그런데 그곳의 빙하가 녹아 대홍수가 일어나고 큰 인명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비는 단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는데, 지구가 따뜻해지며 빙하가 녹고 홍수가 일어나고 신사태가 벌어져 수많은 생명들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기후 위기에 대한 경고가 수없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체감하지 않으면 바뀌지

아왔습니다.

그런데도 과열적인 기후 재앙에 가장 먼저 두들겨 맞았습니다. 이걸 기후 부정의라고 합니다.

세계의 불평등한 것이죠. 가장 적게 탄소를 배출하고 자연을 덜 파괴했음에도, 부유한 자본주의 국가들이 배출한 온실가스의 가파른 폭력에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진사회를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막내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며 배달 음식을 줄여보라고 했습니다.

전기를 덜 쓰고, 종이를 절약하고, 일회용품 줄여도 기후변화를 늦출 수 있습니다. 화석 연료인 덜 써도 온실효과가 파괴되지 않고, 아치면 복원될지도 모를

그 숲도 본래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잠시 맡은 것뿐입니다.

바울은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로마서 8:20)이라 하면서도, 그 피조물이 지금 함께 탄식하며 구원을 고대하고 있다고 말합니다(로마서 8:22).

히말라야의 빙하가 녹아내리고, 네팔의 신과 마을이 무너진 것은 자연의 순리가 아니라 인간의 탐욕이 만연한 탄식의 소리입니다. 그 탄식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신앙의 응답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오늘 하루 배달 음식 한 번을 줄이고, 전기를 아끼고, 일회용품 줄여 덜 쓰는 작은 순종입니다.

정지기는 많은 것을 아끼는 사람이자,

기후 위기 앞에서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대한민국의 날씨 또한 매년 달라지고 있고, 우리는 이미 그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때에 어떤 이들은 기독교의 케케묵은 종말론에 빗대어 이런 재난을 언급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애도에는 종말론적 분석이 아니라, 우리가 자연을 아끼지 않고 함부로 사용한 것에 대한 분노가 담겨 있어야 합니다. 네팔의 탄소 배출 누적량은 고작 0.1%입니다. 또 네팔은 전 세계 기업들이 삼림 벌채에 미쳐 있는 동안, 오히려 근 25년 사이에 삼림 면적을 두 배로 늘린 나라이기도 합니다.

국유림을 지역 사회에 환원하면서 공공림과 사유림이 융합되었고, 네팔인들은 그 숲의 낙엽과 버섯에 의존하며 살

니다. 우리의 작은 실천이 환경을 바꾸는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연을 허락하시면서 잘 경영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할 책임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분명 있습니다.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후 애당초 우리에게 두시고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니라”(창세기 2:15) 말씀하셨다고 기록합니다. 다스리라는 명령은 마음대로 착취하라는 뜻이 아니라, 지키고 돌보라는 책임이었습니다. 시편 기자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시편 24:1) 노래했습니다.

우리가 덮고 선 이 땅도, 히말라야의 만년설도, 네팔 사람들이 의지해 살아온

소비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조금씩 줄이시기 바랍니다.



진 일교 목사
광주제일침례교회 담임

외무필자의 원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도 너의 이름을 부른다

자녀를 위한 매일기도 7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 있는 자로 여길지어다.”(골6:11)

구원의 주 하나님!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복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합니다. 저희 자녀들이 그 원전하신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깨닫고 믿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 자녀들이 그 십자가 사랑에 있대어 살게 하시어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기며 세상 풍조에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영광과 온갖 다려운 것, 탐욕에서 자녀들을 지켜주옵소서.

자녀들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있는 자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아름다운 빛의 열매를 맺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본지는 위 글을 퍼본곳과 협의를 거쳐 인쇄한다(퍼본곳 금란출판사 / 박은주 지음)

미션21 후원교회

기독교한국침례회 성림침례교회 담임: 임영환 목사 주일예배: 1부 9:30, 2부 11:00 수요예배: 7:00 금요예배: 7:30 61142 광주광역시 북구 관동로 242 대표전화: 062-965-1001, F: 265-1003	대한예수교장로회 광주중앙교회 담임: 한철서 목사 주일예배: 1부 9:00, 2부 11:00 수요예배: 7:00, 7:30 금요예배: 7:00, 7:30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로 66 대표전화: 062-962-5419, www.gpcn.org	한국기독교장로회 광주계림교회 담임: 최요한 목사 주일예배: 1부 9:00, 2부 11:00 수요예배: 7:00 금요예배: 7:30 61414 광주광역시 동구 개령로 34-4 대표전화: 062-224-8801, 227-8862	대한예수교장로회 장성제일교회 담임: 장성제 목사 주일예배: 1부 9:00, 2부 11:00 수요예배: 7:00 61222 전남장흥군 장성읍 장성로 41번길 8 대표전화: 061-333-4551, FAX: 061-303-4562	기독교대한성결교회 한빛성결교회 담임: 문희성 목사 주일예배: 오전 9:00, 11:00 수요예배: 오후 2:00 61746 전남장흥군 남구 노대길 41번길 31 대표전화: 062-367-8831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순복음민백성교회 담임: 장희목 목사 주일예배: 1부 9:00, 2부 11:00 수요예배: 7:00 61707 전남장흥군 남구 장흥로 655번길 7 대표전화: 062-382-1141, FAX: 062-383-1143
기독교한국침례회 광주제일교회 담임: 진일교 목사 주일예배: 1부 9:00, 2부 11:00 수요예배: 7:00 61226 전남장흥군 남구 지리동 41 대표전화: 062-362-1565, F: 010-759-7289	대한예수교장로회 방림교회 담임: 김현웅 목사 주일예배: 1부 9:00, 2부 11:00 수요예배: 7:00, 7:30 61676 전남장흥군 남구 용산로 188 대표전화: 062-3675-0774	대한예수교장로회 서광주교회 담임: 최요한 목사 주일예배: 1부 9:00, 2부 11:00 수요예배: 7:00 61649 광주광역시 남구 독립로 99번길 10 대표전화: 062-365-7004, F: 070-752-9092, FAX: 062-65-7004	한국기독교장로회 광주한빛교회 담임: 장성제 목사 주일예배: 1부 9:00, 2부 11:00 수요예배: 7:00 61237 광주광역시 북구 장흥로 155 대표전화: 062-362-6151, www.kjhanbit.org	한국기독교장로회 화순본향교회 담임: 주문환 목사 주일예배: 1부 9:00, 2부 11:00 수요예배: 7:00 58115 전남장흥군 화순읍 화순로 147-7 대표전화: 061-3075-4141	대한예수교장로회 봉선중앙교회 담임: 김희민 목사 주일예배: 1부 9:00, 2부 11:00 수요예배: 7:00 61707 전남장흥군 남구 제서로 80번길 58-6 대표전화: 062-365-1225
대한예수교장로회 세움교회 담임: 임영환 목사 주일예배: 1부 9:00, 2부 11:00 수요예배: 7:00 62311 광주광역시 광산구 세움로 16 (산정동 2번지) 대표전화: 0621-954-0001	대한예수교장로회 푸른솔교회 담임: 김희민 목사 주일예배: 1부 9:00, 2부 11:00 수요예배: 7:00 62308 광주광역시 광산구 수암로 11번길 47 대표전화: 062-365-4620, F: 010-8665-5522	대한예수교장로회 광주산수교회 담임: 임영환 목사 주일예배: 1부 9:00, 2부 11:00 수요예배: 7:00 61411 광주광역시 북구 갈매로 120 대표전화: 062-263-0623, FAX: 062-263-8750	대한예수교장로회 신원벤엘교회 담임: 장성제 목사 주일예배: 1부 9:00, 2부 11:00 수요예배: 7:00 62002 광주광역시 서구 문현로 13번길 7-1 (영동동) 대표전화: 062-226-1009	대한예수교장로회 광주남부교회 담임: 서원국 목사 주일예배: 1부 9:00, 2부 11:00 수요예배: 7:00 61616 광주광역시 남구 교동로 62번길 7 대표전화: 062-352-2011, F: 364-7171, FAX: 364-7175	대한예수교장로회 향기교회 담임: 이강주 목사 주일예배: 1부 9:00, 2부 11:00 수요예배: 7:00 61181 광주광역시 북구 용문로 16번길 14 대표전화: 0621-627-5184